

후나쓰 태내수형

화산의 분화로 용암이 숲속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삼켜진 수목이 불에 완전히 타버리자 식은 용암 안에 구멍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를 ‘용암수형’이라고 부릅니다.가와구치코 호수에서 남쪽으로 5km 정도 거리에 있는 후나쓰 태내수형은 여러 그루의 수목이 함께 쓰러진 형태로 불에 타면서 단면이 원형의 긴 터널 형태로 형성된 매우 드문 용암수형입니다. 용암이 식는 과정에서 물결 모양이 생긴 벽과 머리 위 종유석에서 흘러내리는 물방울을 본 후지코 순례자들은 이 터널을 후지산의 배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몸을 굽히고 이곳을 빠져나오면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터널에 문자 그대로 ‘태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터널 안에는 예로부터 산과 관련된 대일여래와 자비의 보살인 관음보살 등의 작은 불상이 안치되었습니다. 순례자들은 몸을 정화한 후 무릎까지 오는 풀로 만든 특별한 신발을 신고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터널에서 나온 후에는 옛부터 아기에게 먹였던 해조국을 마셨습니다. 후나쓰 태내수형의 이 토산품은 에도(현재의 도쿄)와 그 주변 간토 지방에서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임산부들은 종유석에서 떨어진 물에 적신 어깨띠를 몸에 두르고 터널 안에서 사용한 촛불의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불을 붙여서 순산의 부적으로 삼았습니다.

지금도 후나쓰 태내수형을 과거 순례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빠져나올 수 있지만 조명은 전기로 밝히고 안전 대책으로 헬멧이 주어집니다. 수형 위에 건립된 무쓰무로센겐 신사에는 깊은 신앙심과 완등한 것을 선언하기 위해 후지코 순례자들이 세운 비석이 여러 개 남아 있습니다.

요시다 태내수형

후나쓰 태내수형에서 남동쪽으로 1km 를 못 간 장소에는 요시다 태내수형이라 불리는 또 하나의 태내수형군이 있습니다. 1892 년에 발견된 요시다 태내수형은 후지코 신자들에 의해 곧 신성한 장소로 모셔지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입구는 보이지만, 실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매년 4 월 29 일에 열리는 요시다 태내 축제 때 뿐입니다.